

## 心理治療 및 意思疏通理論에 있어서 transaction의 概念

이 성 태

계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본고에서는 Berne의 TA와 Grinker의 Transactional approach, 그리고 의사소통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의 의미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transaction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Berne의 TA에 있어서 transaction의 개념은 Berne 자신의 성격이론에 기초하여 대인 의사소통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의 한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존재인정 자극(stroke)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자극과 하나의 반응의 상호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섭의 한 단위"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Berne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존재인정 자극을 얻기 위한 의도성이 전제되어 있는 관계작용임으로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으로서의 interaction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Grinker와 의사소통이론에 있어서의 transaction 개념은 Dewey와 Bentley(1949)의 인식론에서 interaction과 구별되는 사물의 탐구관점으로서의 transaction의 개념에 근원을 두고 있어서 양자에서는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transaction은 "관련된 요소들이 한 체제 속에서 동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교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의미를 생성시켜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이론과 Grinker에 있어서 transaction의 개념은, 의사소통 과정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분리, 독립된 존재들로 보고, 이들의 관계작용을 직선적 인과관계로서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 보는 interaction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 心理治療 및 意思疏通 理論에 있어서 transaction의 概念

1. 緒 論
2. Berne의 Transactional analysis에 있어서 transaction
3. Grinker의 Transactional approach에 있어서 transaction
4. 意思疏通 探究의 觀點으로서 transaction
5. 三者間の 比較 및 transaction과 interaction
6. 結論과 提言

## 1. 緒論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이나 의사소통 이론에 관한 문헌들에서 '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Berne(1957, 1964)은 transaction을 "사회적 교섭의 한 단위"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Transactional Analysis(TA)"라고 하는 심리치료 및 상담의 한 이론을 구성하였고, Grinker(1961)는 Dewey와 Bentley가 그들의 인식론에 관한 저서 *Knowing and the known*에서 논의하고 있는 'transaction'의 개념을 사회사업가(social worker)의 정신의학적 기능의 연구에 적용하여 심리치료에 있어서 'transactional model'을 창안하였다. 한편, Barnlund(1970), Sereno와 Bodaken(1975), 그리고 Myers와 Myers(1980) 등은 의사소통의 성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transaction을 interaction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transaction의 개념이 심리치료 및 의사소통 이론의 분야에서 적어도 세 부류의 학자들에 의하여 각자 나름의 이론적 체계화에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transaction의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Kanfer(1962)는 때때로 transaction은 interaction과 혼동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1) 앞서 든 세 부류의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의 의미를 고찰, 비교하고, (2) Kanfer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 혼동되고 있는 transaction과 interaction의 두 개념 간의 의미차이를 밝힘으로써 transaction의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Berne의 TA에 있어서 transaction

Berne이 transaction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의 한 접근방법으로 발전시킨 Transactional Analysis(TA)를 세상에 발표한 것

은 1957년 11월 미국 집단치료학회의 서부지회에서 가졌던 주제강연 *Transactional analysis: A new and effective method of group treatment*에서였다. 1958년에는 이 주제강연이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의 제12권에 게재되었고, 그 후 TA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 저서인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가 1961년에 출판되었으며, 1964년에는 *Games people play*, 1966년에는 *Principles of group treatment*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들과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Patterson(1966)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저작들에서 transaction의 개념의 기원에 관한 기술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transaction과 관련된 기술들은 찾아 볼 수 있다.

“명백하게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교섭(social intercourse)들을 transactions라 부른다. 전형적으로 이들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즉, X로부터 나온 하나의 transactional stimulus는 Y로부터 하나의 transactional response를 끌어낸다. 그리고 이 response는 X에 대해서 하나의 stimulus가 되고, 또한 차례로 X의 response는 Y에 대하여 하나의 stimulus가 된다.”(Berne, 1961, p.82)

“사회적 교섭의 단위를 하나의 transaction이라 부른다.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 만약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즉시 또는 잠깐 후에는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시인하는 어떤 표시를 하게 된다. 이를 transactional stimulus라 한다. 이 stimulus에 따라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응대한다. 이를 transactional response라 부른다.”(Berne, 1964, p.29)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단일의 자극과 단일의 반응으로 구성되는 transaction은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의 단위이다. 그것은 상대하고 있는 각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something)를 얻기 때문에 transaction이라 불려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transaction에 참여하는 이유이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도 일련의 단일 transaction으로 분석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과학이든 단위들에 관한 분명한 체제를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Berne, 1972, p.20)

이상의 기술들에서 Berne이 뜻하는 transaction에 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transaction’을 대인 의사소통의 과정인 사회적 교섭 혹은 사회적 행동의 한 단위이다(Berne, 1964, p.29). 그리고 ‘transaction’들은 대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transaction들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자극과 반응의 상호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행동의 과정으로서, 이른바, 대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Berne, 1972, p.20). 사실상, Berne의 TA의 네 가지 분석 과정들 가운데서 두 번째의 transactional analysis proper나 세 번째의 게임분석은 바로 대인 의사소통 과정의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의사소통에 관한 그의 논문 *Concerning the nature of communication*이 1953년에 발표된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대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현적 메시지보다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내면적 세계 간의 의사소통, 즉 잠재적 의사소통(latent communication)이 갖는 의미를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숨은 동기를 지닌 의사소통, 다시

말해서 게임분석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대인 의사소통의 과정, 즉 transaction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자극과 반응의 연쇄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Berne(1961)에 의하면, 대인 의사소통의 과정은 송신자(X)는 이어서 바로 수신자(Y)가 되고, 또한 수신자(Y)는 이어서 바로 다시 송신자(X)가 되는 상호반응적인 작용으로 얽혀서 진행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일련의 transaction들이었다(p.80). 이것은 의사소통의 과정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transactional analysis proper나 게임분석의 실제에서 볼 수 있듯이, Berne은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분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단일 자극과 단일 반응만을 포함하는 하나의 transaction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에 강조를 두고 있는 Berne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Barnlund(1970), 그리고 Sereno와 Bodaken(1975) 등의 의사소통 과정 구성요소들의 비분리성과 전체의 장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이론에 있어서의 transaction관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Berne(1972)은 앞서 인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대하고 있는 각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transaction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개인이 그것에 참여하는 이유이다(p.20)”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transaction에 참여한다는 진술은 transact하는 이유, 즉 transaction의 목적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 transaction의 목적은 무엇인가? Berne(1964)에 의하면, transaction의 목적은 개인의 존재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인 정자극들(strokes)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transaction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엇”이란 바로 존재인 정자극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transaction이란 의식적이든 무

의식적이든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존재인정자극을 얻기 위한 대인간의 관계작용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TA학자인 McCormick(1977)은 바로 앞서 기술된 Berne(1972,p.20)의 진술에 대하여 “비록 잠시 동안의 인정(recognition)의 기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여하고 있는 각 상대가 교환의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interactions 라기 보다는 오히려 transactions라 불려진다(p.18)”로 부가설명적으로 기술함으로써 TA의 transaction이 interaction과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Berne의 transaction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interaction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interaction과정 자체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Berne의 transaction은 존재인정자극을 주고 받는 교환(exchange)으로서의 의미와 그것의 분석에 보다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Berne, 1972).

한편 Oden(1974)은 transaction을 어원적으로 설명하면서 transaction의 Latin어 어원의 *transactio*는 *trans* (to go beyond or through) + *actus* (an action or act of public business)의 복합어로서 transaction은 작용 혹은 행위 너머 이면의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p.114). 또한 Oden은 transaction이라는 과정은 상호적이고, 갈등하는 관심들의 주고받는 교환의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Oden의 transaction에 관한 어원적 해석은, 세 가지 자아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인간관계작용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단위로서의 독특한 transaction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3. Grinker의 Transactional approach에 있어서 transaction

Grinker(1961)는 Dewey와 Bentley(1949)의 인식론에 관한 공동저서인 *Knowing and the known*에서 논의되고 있는 transaction의 개념에서 심리치료의 한 모형으로서 transactional approach의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Patterson, 1966).

Dewey와 Bentley는 지식 및 과학의 발달과정에서 탐구의 조직화와 그 제시(organization and presentation)를 (1) self-action, (2) interaction, 그리고 (3) transaction의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사물들이 그들 자신의 힘 아래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 이를 self-action으로, 인과적인 상호관련 속에 있는 사물과 사물이 대립하여 균형취하기를 이루고 있을 때 이를 interaction으로, 그리고 사물이 사물과 더불어 과정(process)가운데 있을 때 이를 transaction으로 기술하고 있다(p.108). Toch(1970)에 의하면, 이러한 탐구의 관점으로서 transaction의 개념은, 증전까지 상식으로 되어 있던 interaction적인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기술하기 위하여 Dewey와 Bentley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이 기술하고 있는 양자의 비교를 검토해 보는 것이 두 개념들의 이해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nteraction은 사태들(events)의 관련성에 관한 탐구의 공식화 전에 그 사태들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왔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하는 탐구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transaction은 사태들에 관한 기존기술들(descriptions)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만 수용되고, 그래서 사태들의 국면들이나 변화단계들에 관한 새로운 기술들이 탐구의 어느 단계들에서나 모든 단계들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탐구의 유형이다.”(Dewey와 Bentley, 1949, p.122).

“interaction은 탐구된 여러 대상들이 탐구의 출발전에 마치 적절하게 명명되고(named), 알려진 것처럼 해서 탐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의 절차(procedure)를… 특정대상들 서로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관심을 갖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transaction은 나타나는 모든 제재(題材)들을 망라해서 일차적으로 관찰하면서 체제(system)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의 재결정(re-determination)과 재명명하기(re-naming)를 자유롭게 진행해가는 탐구이다.”(ibid.)

“interaction은 interact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다른 것들의 존재와 독립된 상태에서 각기 분리된 ‘사실들(facts)로서 탐구에서 설정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transaction은 그것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도 전체 제재(題材)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의 명세화한 것(specification)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특수화할 수 없는 사실(fact)이다.”(Ibid.)

“interaction은 사물들을 일차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고, 고정적인 사물들의 속성을 전제로 하여 현상을 연구한다고 하면, transaction은 ‘사물’(thing)은 작용(action)가운데 있고, ‘작용’을 사물처럼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Dewey와 Bentley, 1949, pp.122-123)

“interaction이 유기체와 그것의 환경적 요소들이 연합조사(joint investigation)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서 사실상 분리된 실존들 혹은 실존의 형태들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반면에, transaction은 유기체와 혹은 환경 중 어느 하나만에 관한 어떤 지식도 가정하지 않으며, 그들 간에 관한 현행의 관습적인 구별에 따른 기본적인 성질까지도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기체와 환경의 발전적인 점점을 위한 충분한 자유와 더불어 공동체제(common system)속에 그들을 근본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Dewey와 Bentley, 1949, p.123)

이상의 기술들에서 Dewey와 Bentley의 transaction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ansaction은 탐구의 한 관점, 즉 사물을 보는 관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p.108). 이러한 transaction은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 과정들로서 사건의 취급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Patterson, 1966). 그러므로 탐구의 과정으로서 transaction은 여러 학문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transaction은 탐구의 대상을 고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변화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기존의 기술들이 언제나 새롭게 기술될 수 있어서 재결정(redetermination), 재명명하기(renaming)를 자유롭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탐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p.122).

셋째, 고정된 것이 아닌 사물들, 즉 탐구의 대상들은 작용가운데 있으며, 그 작용은 사물처럼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p.122, 123).

넷째, 이와 같은 transaction에 관여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각각 분리, 독립된 존재로서의 탐구대상이라기 보다는 분리, 독립된 것으로 명세화(specification)할 수 없는 공동체제(common system)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체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p.123). Dewey와 Bentley(1949)도

Dewey의 transaction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interaction에 의해서보다는 더 강조적으로 체제(system)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다(p. 116)

다섯째, 이처럼 체제를 강조하는 Dewey와 Bentley의 transaction의 관점은 사람이 세상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상식과는 달리 사람과 그의 세계 양자를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활동들은 유기체 환경의 과정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타자없는 한 개인이 존재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째, transaction의 관점에서는 유기체가 환경과 더불어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유기체나 그 환경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부적절하다. 전체적인 체제가 관찰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Dewey와 Bentley의 transaction의 개념의 특징은 (1) 탐구의 한 관점이고, (2) 탐구의 대상을 고정되고, 주변 조건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한 요소로 보기보다는 한 체제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며, (3) 따라서 탐구과정에서는 전체체제가 관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Grinker(1961)는 이와같은 Dewey와 Bentley의 transaction이라는 탐구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관점을 심리치료의 장면에서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Grinker(1961)는 심리치료의 과정을 (1) 치료장면, (2) 참여자들, (3) 그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의 세 측면의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transaction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의 본질을,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특정한 환경 내에서 분리된 개별적 실체들(entities)이나 혹은 개인들로서가 아니고 한 특수한 체제(system)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련 속에서만의

관계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성, 즉 transaction의 의미를 Grinker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제 우리는 self-actional 혹은 interactional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환경(a specified environment) 내에서 들 혹은 그 이상의 개인 들의 관계의 성질이 갖는 함의측면에서 transactional을 생각해 보아야겠다. 양자는 구별되고, 분리된 실체들(entities)이나 혹은 개인들로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situation)에 대하여 갖는 독특한 영향력을 서로 간에 미친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작용하고, 그의 반응이 다시 먼저 작용한 사람에게 피이드백한다. 그 과정은 상호교환적(reciprocal)이고, 순환적이다. transact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초점들이 존재하는 체제(system)의 장(setting)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processes)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 결정하기도 한다. 치료적 장면에서 내담자와 치료자의 특수한 생활상황이 상호교환적이고, 순환적이며,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transaction의 성질을 그때 그때 결정한다.”(Grinker, 1961,p.200)

이처럼 Grinker가 내담자와 치료자의 two-person system을 들려싸고 있는 영향력들을 중요시 하면서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transaction으로서의 의사소통을 설명하고 있는 기술들을 Patterson(1966)의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transactional theory는 ‘transaction에 참여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호교환적인 체제임(Grinker, et al.,1961,p.293)을 강조한다. 또

한, 언어로 표현되거나 제스처 등 비언어적으로나 불통거림, 아(ahs), 어(uhs), 그리고 중단하는 등의 의사언어적으로(paralingually) 표현된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의미들이 표현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한다(Ibid)는 점을 transactional theory는 강조한다.”(Patterson, 1966,p.387)

이상에서 우리는 Grinker가 사용하고 있는 transaction의 개념에 관한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탐구의 대상을 고정되고 주변의 조건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한 체제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는 Dewey와 Bentley의 transactional 관점을 Grinker는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관계작용에 적용한 것이다.

둘째, 따라서, Grinker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two-person system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의사소통을 transaction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의사소통은 (1) 치료장면, (2) 참여자들, 그리고 (3) 그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의 세 측면의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체제로 이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되고 상호교환적이고, 순환적이며,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transaction인 것이다.(Grinker, 1961,p.195,200 ; Grinker, et al.,1961,p.293).

넷째, 이와 같은 transaction의 본질은, 분석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분리하지 않고서는 그 구성 요소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내담자와 치료자의 transactional 의사소통은 두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분리된 개별적 실체들이나 혹은 개인들로서가 아니고 한 특수한 체제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Grinker, 1961,p.200).

#### 4. 意思疏通 探究의 觀點으로서 transaction

대인의사소통의 탐구관점이나 그 관점들의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Barnlund, 1970, 1973 ; Dance,1970 ; Sereno와 Bodaken, 1975 ; Myers와 Myers, 1980 ; Littlejohn, 1983). 다양한 의사소통의 관점들 가운데 하나가 transaction관점이다. Sereno와 Bodaken(1975), Stewart(1977), 그리고 Myers와 Myers(1980) 등에 의하면, 의사소통 이론에 있어서 transaction의 개념은 (1) 의사소통을 송신자의 일방적인 작용으로 본 초기의 의사소통 탐구의 관점에서부터 (2) interaction관점으로, 그리고 (3) transaction관점으로 발달해 온 의사소통의 탐구관점의 발달적 과정에서 고찰될 수 있다.

의사소통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대인의사소통을 마치 과녁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송신자(sender), 즉 말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작용(one-way action)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Myers와 Myers(1980)는 이를 표적중심이론(bull's theory)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뜻하는 의사소통이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돕거나 혹은 수신자의 다른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송신자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에 주된 관심을 모으게 마련이다. 즉, 이 관점의 의사소통에 관한 탐구의 강조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만들고, 조직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송신자에게 둔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관점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는 피이드백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situation)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에도 의사소통자(com-

municator)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 관점은 의사소통을 일방적인 혹은 직선적인 활동으로 다룸으로써 의사소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Myer와 Myers, 1980 ; Sereno와 Bodaken, 1975).

한편, 의사소통을 interaction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을 원인과 결과의 연속 혹은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전자가 말한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보내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되돌려 받는다. 마치 탁구공을 치고 받는 것처럼. 그리하여 Myers와 Myers(1980)는 interaction으로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관점을 “핑퐁이론(ping-pong theory)”이라 부르기도 한다. interaction관점은 의사소통을 송신자의 일방적인 작용으로 보는 관점과는 달리 의사소통과정에 참여자들이 교대로 상대방의 영향을 되돌려 받게 된다는 피이드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과정이 쌍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송신자뿐만 아니고 수신자도 아울러 탐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이 관점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의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은 일방적인 작용으로 보는 관점에 비해서 의사소통의 복합성을 보다 많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raction의 관점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단순하게 말하고 응답하는 형식의 직선적 인과(linear cause and effect)의 과정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관여하고 있는 송신자나 수신자가 동시에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관점은 여전히 의사소통의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Myers와 Myers, 1980).

다른 어떤 의사소통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제기한다(Sereno와 Bodaken, 1975). 한 개인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송신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송신자의 역할만 하고, 또는 수신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단지 수신자의 역할만 하는 것인가? 송신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신자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수신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송신하고 있지 않는가? 반면에, 수신자도 송신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단지 들리는 바를 해석하고, 또한 비록 그것이 부분적일지는 모르지만 수신자 나름으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볼 때, 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인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송신자로서 또한 수신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Barnlund(1970)는 의사소통을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reaction)이나 또한 어떤 것과의 interaction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미를 발명하고 만드는 과정, 즉 transaction”이라 하였다(p.88).

Sereno와 Bodaken(1975)은 이와 같은 transaction으로서의 의사소통을 (1) 개인내적 혹은 개인외적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관련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체제(a system)이며, (2) 그러한 체제 속에서 개인내적 자극들과 개인외적 자극들을 융합하고, 세계를 학습하게 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그리고 주관적인 지각(perception)을 한 요소로 지니고 있어서 (3) 그 자극들의 융합으로 생성되는 의미들을 공유(sharing)하는 의미창출(creating meaning)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4) 지속적이고 항상 변화하는 과정(process)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Barnlund(1970,p.



87-94)가 의사소통을 (1) 의미의 진화과정, (2) 역동적, (3) 지속적, (4) 순환적, (5) 비반복적, (6) 취소할 수 없는, 그리고 (7) 복합적인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Cronkhite(1976)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복합적인 인과관계와 interaction을 포함하고 있는 transaction으로서의 의사소통을 말하고, 그것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communication event is a unique combination of people, messages, and situation such that if any one of those elements changes it creates a different communication event.”(p.52)

Cronkhite는 transaction으로서의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를 (1) 참여자, (2) 메시지, (3) 상황으로 보고 이들의 상호의존적으로 상호교환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즉 의미들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해 온 바를 정리해 보면, transaction이란 “다수의 인과관계 요인들의 interaction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직선적인 연속과정에서의 작용과 반작용을 넘어서서 개인내적 그리고 외적 요소들을 각각 지니고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동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관계작용에서 의미의 진화를 생성하는 하나의 나선적 과정”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interaction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 피이드백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적 인과작용의 과정으로서의 교호작용(交互作用)을 말하며, transaction은 이와 같은 교호작용 이상의 것으로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서로 응하는, 즉 상응(相應)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진화, 생성되는 의미생성적 상응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이론에 있어서 inte-

raction과 transaction의 두 개념 간에는 의미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의사소통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transaction의 개념으로 의사소통의 복합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Barnlund, 1970; Sereno와 Bodaken, 1975; Cronkhite, 1976; Stewart, 1977; Myers와 Myers, 1980; Littlejohn, 1983, 등).

### 5. 三者間の 比較 및 interaction과 transaction

1) Berne, Grinker,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에 있어서 transaction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바를 토대로 하여 Berne, Grinker,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의 개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Berne, Grinker,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 모두가 공통으로 transaction을 대인 의사소통의 성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Berne은 인간 이해 및 심리치료과정에서 대인 의사소통의 한 분석단위로, Grinker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성 (relationship)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대인 의사소통을 interaction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Grinker와 의사소통 이론에서 transaction의 개념은 서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Berne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들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즉, Grinker와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인 의사소통을 interaction의 과정 이상의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transaction으로 기술하고 있다(Grinker, 1961; Sereno와 Bodaken, 1975; Stewart, 1977, 등). Grinker와 의사

소통이론에서는 대인 의사소통을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직선적 인과작용, 즉 interaction의 과정 이상의 것으로서 transaction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transaction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일어나는 관계작용을 동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것으로 보고, 임의적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한 누구가 송신자이고 혹은 수신자인지 그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transaction은 관계작용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교환적이어서 한 요인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체제(a system)로 설명되기도 한다(Grinker, 1961; sereno와 Bodaken, 1975). 이제까지 본고의 탐구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양자의 유사성과 그리고 Stewart(1977)와 Grinker(1961)의 기술들을 종합해 보면, 양자 모두 Dewey와 Bentley(1947)의 transaction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은 Grinker의 transaction 개념이 Dewey와 Bentley(1949)의 transaction 개념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이미 기술된 바 있으며, 한편, Stewart(1977)도 "Interpersonal communication-A meeting between persons"라는 논문에서 대인 의사소통의 관점을 (1) communication as action, (2) communication as interaction, 그리고 (3) communication as transac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세 부분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Dewey와 Bentley(1949)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석(footnote)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erne의 transaction의 개념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Dewey와 Bentley의 transaction 개념과 그것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를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Stewart(1977)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의사소통에 관한 한 관점으로서 transaction을 설명하면서 TA의 transac-

tion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Berne은 transaction을 "하나의 자극과 하나의 반응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교섭의 단위(1964, p. 29)"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소통 이론에서의 transaction과는 달리 오히려 작용과 반작용으로서의 interaction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Berne(1972)은 사회적 교섭의 과정에서 "상대하고 있는 각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transaction이라 불려진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McCormick(1977)은 TA의 transaction을 존재인정자극들(strokes)의 교환(exchange)으로 해석하면서 "교환에 관여하고 있는 각 사람이 교환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interaction보다는 오히려 transaction이라 불려진다(p.18)"고 기술하고 있어 interaction과 transaction을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도달하게 된다. 즉, Berne의 TA에 있어서 transaction은 의사소통 이론에서의 transaction과는 다르고, 또 interaction과도 구별되는 것이라면, TA에 있어서 transaction은 어떻게 설명 될 수 있는 것인가?

Berne은 Grinker나 의사소통 이론에서처럼 대인 의사소통을 self-action으로 볼 것이냐, interaction으로 볼 것이냐 혹은 transaction으로 볼 것이냐에 관심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transaction을 "단일의 자극과 단일의 반응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교섭의 한 단위"로 정의하고, 자신의 성격이론에 기초하여 그 자극과 반응이 송신자와 수신자 각각의 세 가지 자아상태들(Parent ego state, Adult ego state, Child ego state)중에서 어느 자아상태에 의하여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Berne, 1961, 1963). 이처럼 Berne이 심리치료의 주된 방법을 분석에 힘으로써 결국 분석단위를 규정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transaction이

대인의사소통의 분석단위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Grinker나 의사소통 이론에서 대인의 사소통을 interaction과 구별하여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련된 요소들(크게는 개체와 환경)의 분리 혹은 독립성보다는 비분리성과 상호의존성 및 상호교환성과 전체의 장(場)을 강조하는 transaction개념과 Berne의 분석단위로서의 transaction 개념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오히려 Berne 자신의 성격이론에 기초하여 대인의 사소통의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그 나름의 독특한 용어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Berne이나 Grinker나 의사소통 이론 모두의 transaction의 개념 속에는 interaction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2) Interaction과 Transaction

*Webster's Third New Interantional Dictionary* (1976)에서는 관계작용의 설명으로서의 interaction을, 예컨대, 사물과 사물 간 혹은 개체와 환경 간에 있어서 서로(mutual) 혹은 상호교환적(reciprocal) 작용 또는 영향력(influence)으로 설명하고 있으며(p.1176), transaction에 관해서는 로마시민법에 있어서 상호 동의 하에 논쟁 중에 있는 요구들의 타협 혹은 적응의 뜻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교환적으로(reciprocally) 서로 영향을 주는 두 상대들 혹은 두 사물들을 포함하는 의사소통적 작용(communicative action) 혹은 활동(activity)으로 설명하면서 하나의 작용 혹은 과정으로서 transaction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p.2425-2426). 이러한 사전적 설명에서 우리는 interaction이나 transaction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계대상들 간에 상호교환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관계대상들 간에 상호교환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보면, interaction과 transaction은 Kanfer (1962)가 지적한 것처럼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Dewey와 Bentley(1949)의 인식론적 탐구관점으로서의 transaction의 개념에 근거를 둔 Grinker의 transactional approach나 의사소통 이론에서의 transaction과 interaction개념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interaction은 관계작용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각각 독립된 분리된 존재들로 보고, 그 관계작용의 과정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직선적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다. 반면에, transaction은 관계작용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들은 각각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들로 보다는 오히려 한 체제 속에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으로 그리고 상호교환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과정에 있는 관계작용의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interaction과정에서는 관계구성요소들을 분리해 낼 수 있지만 transaction에 있어서는 임의적으로 분석, 분리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관계작용의 탐구과정에서는 전체 체제가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Berne의 transaction개념은, 하나의 자극과 하나의 반응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Berne의 조작적인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interaction과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Berne이 transaction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비록 transaction의 과정에 interaction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interaction 그 자체라기 보다는 관계작용자들 간의 각자 성격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적으로 갈등하는 관심들을 주고 받는 교환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Berne의 transaction은 interaction과 동일시 될 수는 없으며, 또한 Grinker나 의사소통 이론에서의 transaction과도 상이성을 보이는 것으로서 “사회적 교섭의 한 단위”

라고 하는 Berne 나름의 독특한 의미가 부여된 transaction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6. 結論과 提言

본고의 목적은 심리치료 이론에 있어서 Berne의 TA와 Grinker의 transactional approach,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의 의미를 비교, 고찰하고, 또한 때로는 혼돈을 일으키기도 하는 transaction과 interaction의 두 개념들의 의미를 비교하고 고찰함으로써 transaction의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먼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Grinker의 transaction과 의사소통 이론에서의 transaction은 서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Berne의 transaction과는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3자(三者)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의 개념들은 interaction과는 구별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Berne에 있어서 transaction의 개념은 Grinker나 의사소통 이론의 경우에서 처럼 그 어원(語源)에 관한 기술들을 찾아 볼 수 없고, Berne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 개념으로 보인다. Berne은 자신의 성격이론에 기초하여 대인 의사소통을 설명하고, 또한 치료하기 위한 대인 의사소통의 한 분석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transaction은 "존재인정 자극(Stroke)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자극과 하나의 반응의 상호 교환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상호교섭의 한 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transaction이 하나의 자극과 하나의 반응으로 구성된다"는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interaction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당사자들 간에 서로 존재인정 자극을 얻고자 하는 의도성(意圖性)을 전제로 하는 관계작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서의 interaction 이상의 관계작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erne의 transaction은 interaction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Grinker와 의사소통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은 Dewey와 Bewtley(1949)의 인식론에서 interaction과 구별하는 사물의 탐구관점으로서의 transaction의 개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듯하다(Grinker, 1961; Patterson, 1966; Stewart, 1977). 따라서 양자에서 사용되고 있는 transaction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다. 이들의 transaction은 "관련된 요소들이 한 체제 속에서 동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교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의미를 생성시켜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이론과 Grinker에 있어서 transaction의 개념은, 각각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들로서의 구성요소들 간의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으로서 직선적인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용으로 설명되는 interaction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전문용어'에 대한 논의와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한 용어의 개념에 관한 분명한 이해는 그 용어로 기술되고 있는 현상이나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된 열쇠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용어의 번역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번역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transaction의 한국어로의 번역에 관한 것이다.

심리치료 분야에서 Grinker의 transactional approach를 이 관용, 이장호(1972)는 상입적 어프로치로, Berne의 transactional analysis를 이형득(1973)은 의사거래(意思去來)분석으로, 이기춘(1978)은 TA요법으로, 김인자(1982)는 상호반응분석으로, 김충기, 이재창(1985)은 상호교류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교류분석(交流分析)으로 번역되고

있는 듯하다(池見酉次郎, 杉田峰康, 1974).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에서의 transaction을 이 형식(1982)은 상호복합작용(相互複合作用)으로 번역하여 interaction의 상호작용과 구별하고 있다.

이처럼 transaction이라고 하는 한 영문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역자들 나름으로 파악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은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비록 한 단어로 표기되는 어휘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개념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단어로 번역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정의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transaction의 의미에 관한 고찰들을 토대로 하면, transaction은 어떤 관계 상황 혹은 관계작용을 기술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interact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transaction을, 이미 상호작용 혹은 교호작용으로 번역사용되고 있는 interaction과 구별하여 상응작용(相應作用)으로 번역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金仁子역(1982). 適應心理(E. Atwater, Psychology of adjustment). 서울: 正民社.
- 金忠起, 李載昌 공역(1985). 相談과 心理治療(R.L. George and T. S. Cristini, Theory, methods, and proces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81). 서울: 教育科學社.
- 李寬鎔, 李將鎬 공역(1972). 카운셀링과 心理治療의 理論과 實際(C. H. Patterson,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66).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 李起春(1978). 宗教經驗과 牧會人力管理-TA療法에서 본. 基督教思想, 10월호, pp.134-145.
- 李炯得(1973). 상담 및 심리치료의 새로운 방법.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학생지도, 15, pp. 113-122.
- 李炯得(1982). 人間關係訓練의 實際. 서울: 中央適性出版社.
- 池見酉次郎, 杉田峰康(1974). せろせろプロセスコントロール: 交統分析の實際, 創元社.
- Barnlund, D. C.(1970). A transactional model of communication. In K. K. Sereno, and Mortensen, C. D.,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pp.83-102). New York: Harper and Row.
- Barnlund, D. C.(1973). Toward a meaning-centered philosophy of communication. In John Stewart(Ed.), *Bridges not walls: A book abou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nd ed.(pp.38-45),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Berne, E.(1953). Concerning the nature of communication, *Psychiatric Quarterly*, 27: 185-198.
- Berne, E.(1958). Transactional analysis: A new and effective method of group 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2: 735-743.
- Berne, E.(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Grove Press.
- Berne, E.(1963).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organizations and group*,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Berne, E.(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erne, E. (1966). *Principles of group treat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e, E. (1972). *What do you say after you say hello?* New York: Grove Press.
- Cronkite, G. (1976). *Communication and awareness*. Reading, Massachusetts: Cummings Publishing Company.
- Dance, F. E. X. (1970). A helix model of communication. In K. K. Sereno, and Mortensen, C. D.,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pp.103-107). New York: Harper and Row.
- Dewey, J., and Bentley, A. F. (1949). *Knowing and the known*, Boston: The Beacon Press.
- Grinker, R. R. (1961). A transactional model for psychotherapy. In Stein, M. I. (Ed.), *Contemporary Psychotherapies* (pp.190-213).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Grinker, F. H. (1962). The here and now in psychotherapy: Review of R. R. Grinker and others, *Psychiatric social work-a transactional case book*. *Contemporary Psychology*, 7, 295-296.
- Littlejohn, S. W. (1983).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2n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McCormick, P. (1977). *Social transactions*. Stockton, California: Vanguard Press.
- Myers, G. E., and Myers, M. T. (1980).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A laboratory approach*,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Oden, T. (1974). *Game free*. New York: Harper and Row.
- Patterson, C. H. (1966).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Harper and Row.
- Sereno, K. K., and E. M. Bodaken. (1975). *Trans-Per understanding human communi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tewart, J. (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 meeting between persons. In J. Stewart (Ed.), *Bridges not walls: A book abou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nd ed. (pp.38-45).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Toch, H., and McLean, M. S., Jr (1970).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A transactional view. In K. K. Sereno, and Mortensen, C. D.,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theory* (pp.125-136). New York: Harper and Row.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6).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pp.1176, 2425-2426.

〈ABSTRACTS〉

The Concept of Transaction in Psychotherapy and Communication Theory

Sung Tae Lee

Keimyung Junior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transaction, as it applies to Berne's transactional analysis(TA), Grinker's transactional approach in psychotherapy, and to communication theory. In Berne's TA, the concept of transaction is employed as an analytic unit of personal communication based on his personality theory. It may be defined as a unit of social intercourse consisting of a single stimulus and a single response for stroke, a unit of recognition. In communication theory and Grinker's transactional approach, the concept of transaction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concept of transaction of Dewey and Bentley(1949) which is distinguished from interaction. Therefore, the meaning of concept of transaction used in these cases are very similar. Such concepts of transaction may be defined as a process which creates a meaning with the elements related in a system of communication affected or influenced simultaneously, interdependantly and reciprocally each other. Consequently, in ommunication theory and Grinker's transactional approach, the concept of transaction can not be identified with the concept of interaction that implies the linear cause and effect or the action and reaction of two separate or independently existing objects.